



미 증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에 반도체주 급락

미국 증시 리뷰

17 일(수)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위원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에게 추가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도에 반도체주 대부분 6%이상 급락세 나타나며 약세. (다우 +0.59%, S&P500 -1.39%, 나스닥 -2.77%, 러셀 2000 -1.06%) 업종별로 필수소비재(+1.4%), 에너지(+1.1%), 금융(+0.9%), IT(-3.7%), 통신(-2.1%), 경기소비재(-1.8%) 약세.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내에서 7 월달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났다고 평가.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완만(modest)하거나, 완만(moderate)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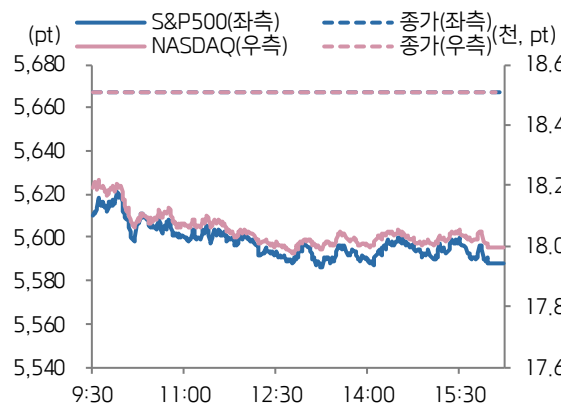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9 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임.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

트럼프는 연준이 11 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언급.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가기는 했다"며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네덜란드의 ASML 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FDPR 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및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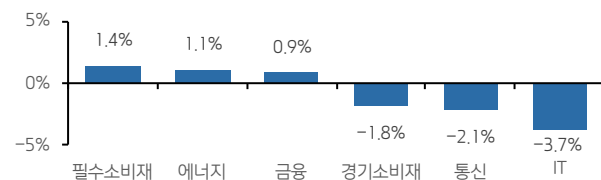
엔비디아(-6.64%), AMD(-10.21%), TSMC(-7.98%), ASML(-12.29%), 브로드컴(-7.91%), 퀄컴(-8.61%) 등 반도체주 대부분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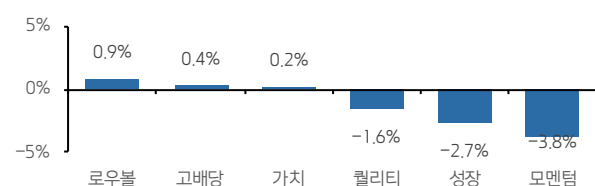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843.29	-0.8%	USD/KRW	1,380.70	-0.34%
코스피 200	391.55	-0.95%	달러 지수	103.75	-0.5%
코스닥	829.41	-1.21%	EUR/USD	1.09	+0%
코스닥 150	1,371.92	-1.71%	USD/CNH	7.27	-0.02%
S&P500	5,588.27	-1.39%	USD/JPY	156.04	-0.1%
NASDAQ	17,996.92	-2.77%	채권시장		
다우	41,198.08	+0.59%	국고채 3년	3.053	+1.8bp
VIX	14.48	+9.78%	국고채 10년	3.140	+0.3bp
러셀 2000	2,239.67	-1.06%	미국 국채 2년	4.438	+2.1bp
필라. 반도체	5,408.71	-6.81%	미국 국채 10년	4.158	+0bp
다우 운송	16,071.97	-1.39%	미국 국채 30년	4.375	+0.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891.46	-1.14%	WTI	83.12	+0.33%
MSCI 전세계 지수	823.59	-0.92%	브렌트유	85.08	+1.61%
MSCI DM 지수	3,607.74	-0.97%	금	2462.5	+0.11%
MSCI EM 지수	1,111.46	-0.53%	은	30.14	-3.39%
MSCI 한국 ETF	67.08	-1.69%	구리	439.9	-1.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6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7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관세부과, 글로벌 무역 축소 등 리스크로 반영되기 시작할 소지 2. M7 에 대한 실적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유지 3. 트럼프 트레이드 및 실적 기대감 유효, 방산, 조선, 건설 등이 하단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에 고려하고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일차적으로는 네덜란드의 ASML 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의 중국에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해 사후 수리 등 기술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적용될 전망. 미국 정부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이들 국가가 자발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이 FDPR 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지난 5 월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 규제를 발표하며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의 동조를 촉구한 이후 실제로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 당시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동맹국들이 중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제조 역량이 부족한 한국과 유럽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고서 발표.

결국 대중국 규제 강화, 동맹국들의 동조 요구는 초당파적임을 재확인. 트럼프가 전일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이라고 지적한 점 역시 같은 맥락.

그동안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이후 세금인하,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되었으나, 관세부과, 글로벌 무역 축소 등 현재의 금리인하 기대와 상충되는 부분이 리스크로 반영되기 시작할 소지가 있음. AI 의 장기 성장잠재력은 유효하나 단기 급등한 만큼 약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 빅테크 실적에 대한 경계심리 더욱 높아지겠지만, 그외 S&P500 에너지, 원자재, 산업재의 이익증가폭이 가장 크게 상향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M7 에 대한 실적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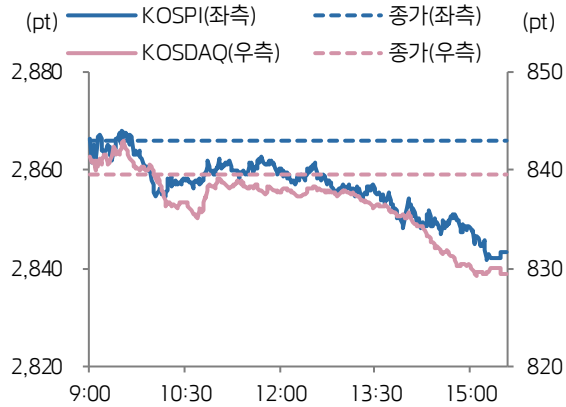
17 일(수) 국내증시는 반도체 등 시총 상위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 2,900 선 돌파를 앞두고 약세 마감 (KOSPI -0.80%, KOSDAQ -1.21%)

금일에는 미국의 반도체주 급락 및 정책 불확실성이 추가 약재로 작용하며 추가 약세 흐름 보일 전망.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및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므로 방산, 조선, 건설 등이 하단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

SK 하이닉스(-5.36%), 한미반도체(-5.2%) 등 HBM 관련주 급락. 전일 엔비디아 약세, 다음주 빅테크 실적 경계심리 유입. 또한 트럼프가 1) 연준이 11 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언급, 2)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가고 있고 이를 방위비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비판에 위험선호심리가 위축. 18 일까지 후보 연설 및 공약 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발언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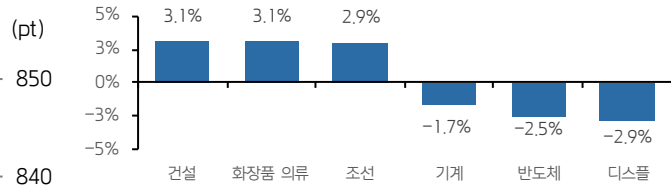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7 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몰린 지역에 1000MW 급 원전 2 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힘.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몰린에 짓는 2기에 대해선 5년 안에 건설 여부를 확정할 예정.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II 는 내년 3 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 년 공사를 시작해 2036 년부터 상업 운전 목표. 시장 컨센서스는 이미 17 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장 직후 원전주 변동성 확대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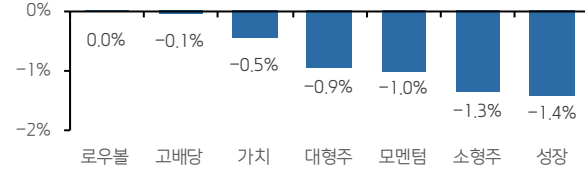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